



태풍 '마이삭'을 피해서...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중인 가운데 1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에 많은 어선들이 대피해 있다.<관련기사 4면> 강희만기자

제주시민들 가장 무더운 8월 보냈다 평균기온 29.4℃ ... 1923년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지난달 제주시민들이 73년 만에 역대 가장 무더운 8월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제주시(북부) 지역의 평균 기온은 29.4℃로 192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
 올해 8월 제주시 평균기온은 전년 같은달 기록한 27.7℃에 비해 1.7℃, 종전 최고값이었던 2013년 8월의 29.1℃와 견줘서는 0.3℃ 높았다.
 지난달 제주도 전체 평균 기온은 28.4℃를 보여 역대 4위에 올랐다. 역대 1위는 2013년 8월의 29.1℃로, 당시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동일한 평균기온을 보였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평균기온을 합산해 산출하는 전체 평균 기온은 1961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했다.
 나머지 지역도 줄줄이 상위권에 올랐다. 지난달 고산 지역의 평균기온은 27.7℃로 역대 2위를, 성산 지역은 27.9℃로 역대 3위에 해당했다. 역대 최고 값은 고산이 27.9℃(1988년 8월), 성산이 28.3℃(2013년 8월)였다.
 반면 지난달 서귀포시 지역(남부)의 평균 기온은 27.4℃로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제주시 지역 기온이 높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월 5일 밤부터 6일 오전 사이 제주시 지역 최저기온이 편현상의 영향으로 29.7℃까지 치솟아 기상청이 열대야를 측정하기 시작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제주시 지역에서는 지난 7월 20일 오후 첫 열대야가 시작한 이래 9월 1일까지 36일째 이어지고 있으며 제주에서 가장 열대야가 길었던 해는 2013년으로 당시 44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도 공공시설 내일부터 또 운영 중단

도, 어제 제11차 생활방역위원회 열고 방안 논의
 오는 14일까지 중단키로... 2단계 방역 한층 강화
 회의 결과 보고절차상 이유 공개안해 비판 자초

제주도내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운영이 중단될 예정이다. 확대 개방된지 20여일 만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후 제11차 생활방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제주형 방역대책 방안과 공공시설 개방운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주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11일 제9차 생활방역위원회를 통해 8월 13일부터 도 산하 12개 공공도서관 열람실과 6개 공공 공연장에 대한 개방폭 확대를 결정했다.
 그런데 도는 이날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보고 등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방역위의 회의는 오후 5시쯤 마무리됐으며, 회의가 끝난 직후 도 공보실 측은 회의 내용에 따른 결과를 2일 오전 방역 관계자가 직접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도내에는 코

제주형 자율학교 초·중·고 56개교로 확대

IB학교 4곳·다혼디배움학교 9곳 신규지정 13곳 2024년까지 운영
 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어 2015년부터 운영된 다혼디배움학교는 '중종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배움 중심의 교육활동 실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조직 개편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제주형 자율학교로 신규 지정된 13개 학교는 2024년까지 4년간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종합평가를 통해 계속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 기간 동안에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예산과 교직원 연수, 컨설팅을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총 56개교로 확대된 IB학교와 다혼디배움학교는 평가혁신, 리더십혁신,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학교로 학생의 기초·기본 학습 역량을 근간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원희룡 지사 "벌초·추석연휴 고향 방문 자제해달라"

코로나19 선제대응위해 권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일 벌초 시즌과 추석연휴 기간 수도권 지역 도민의 제주 왕래 자제를 강력 권고했다.
 이는 최근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심각한 수준이고, 제주지

역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원 지사는 이에따라 수도권 지역 제주도민들의 벌초에 따른 고향방문이나 추석연휴 고향방문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원 지사는 "민족 대명절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감염을 걱정해야 하는 두려운 상황이다"면서 "추석은 가족·친척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문화이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지금은 방역이 최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지

제주의 수돗물

생활속에서 물 절약을 실천합시다!

물 부족 해결을 위한 물 절약 실천방안

-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할 때, 10분경과시 100리터의 물이 낭비됩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미리 닦아낸다면 20리터의 물(4인가족 기준)이면 됩니다.
- 물을 틀어놓고 양치할 때, 30초 경과시 6리터의 물이 사용됩니다.**
 물걸 사용 시 하루(아침, 저녁)에 40리터의 물을 절약(4인가족 기준) 할 수 있습니다.
- 물을 틀어놓고 샤워할 때, 보통 120리터의 물이 사용됩니다.**
 머리를 감거나 비누 칠 할 때만 잠가도 60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변기나 수도꼭지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하면 20%~50%까지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Jeju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http://www.jejuwater.go.kr

